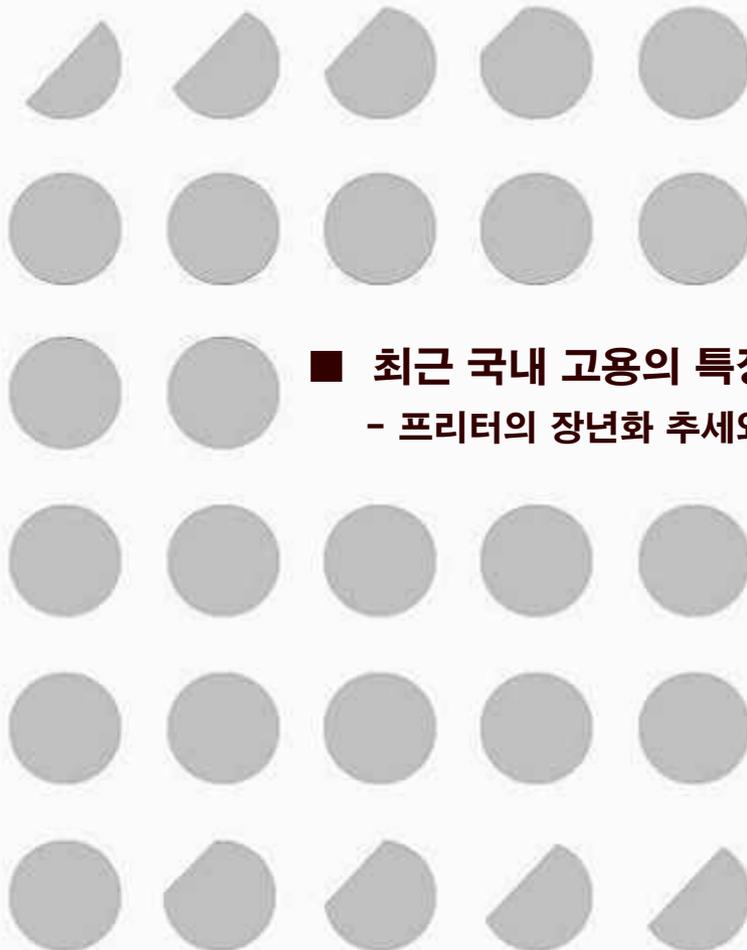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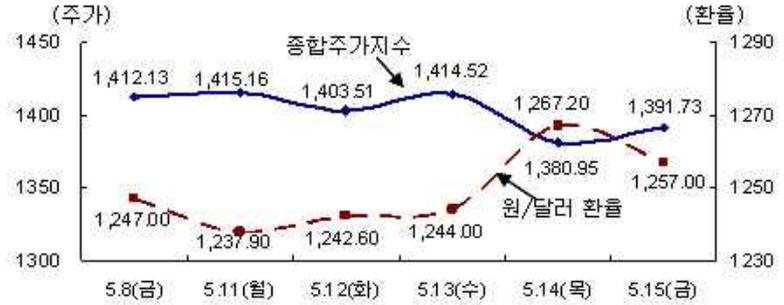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최근 국내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프리터의 장년화 추세와 과제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8~5.15)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최근 국내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프리터의 장년화 추세와 과제	1
주간 경제 동향	10
□ 실물 부문 : 신규 고용 감소세 지속	10
□ 금융 부문 : 단기 급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 시장 조정 국면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물경제실 : 정 유 훈 선임 연구원 (3669-4014, youhun@hri.co.kr)

Executive Summary

□ 최근 국내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프리터(Freeter)의 장년화 추세와 과제

(프리터의 장년화) 국내 경제 침체로 신규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용 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인구가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프리터족이 청년층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리터(Freeter, Free+Arbeiter)란 청장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상태에 있거나, 시간제 또는 비전형 노동 상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에 있는 비정규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통학자, 취업준비자들을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내 전체 프리터 수는 2003년 8월 381만 명에서 2008년 8월에는 25.5% 증가한 478만 명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율은 2003년 8월 59.2%에서 2008년 8월 59.6%로 0.4%p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동기간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프리터 비중은 10.2%에서 12.1%로 1.9%p나 상승하였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내에서 상대적으로 프리터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현상은 최근에 들어 전체 프리터 가운데 장년층 프리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30~39세 장년층의 프리터 비중은 2003년 8월 10.9%(93.1만 명)에서 2008년 8월 12%(99.1만 명)로 증가하였다. 40~49세 장년층 프리터 비율은 2003년 8월 10.1%(79.3만 명)에서 2008년 8월 12.5%(104.4만 명)로 2.4%p 증가하였다.

(프리터 장년화의 배경) 프리터가 장년화되는 원인은 우선,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의 비율인 고용 탄성치는 2005년 2/4분기 0.5에서 2008년 3/4분기에 0.1로 급락하여,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신규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둘째,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자리 수요 공급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다. 셋째,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300인 이하 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2000년 126만 원에서 2007년 20만 원으로 59.5%(7만 원) 증가한 반면 5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동기간 155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74.2%(115만 원) 증가하였다. 넷째, 고용 정보 시장의 인프라가 미흡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 중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 내 취업소개기관 등을 통한 경우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과제) 프리터의 장년화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 때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 유지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 투자 증대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전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기업의 연계를 지원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청년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관련 DB구축의 세분화와 취업알선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취업희망자와 취업공급자와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

< 최근 국내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 프리터(Freeter)의 장년화 추세와 과제

최근 고용 시장의 프리터 추정	
프리터 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체 프리터 수는 2003년 8월 381만 명에서 2008년 8월 25.5% 증가한 478만 명 수준으로 증가 - 생산자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2003년 8월 59.2%에서 2008년 8월 59.6%로 0.4%p 상승 · 이에 반해 생산자인구대비 프리터 비율은 10.2%에서 12.1%로 1.9%p 상승
프리터의 장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터들의 장년화로 청년층 뿐만 아니라 장년층 프리터 비중도 증가 · 15~29세 프리터 비중은 2003년 8월 12.2%에서 2008년 8월 13.9%로 증가 · 30~39세 프리터 비중은 같은 기간 10.9%에서 12.0%로 증가 · 40~49세 프리터 비중은 같은 기간 10.1%에서 12.5%로 증가

프리터의 장년화 추세 배경	
고용 창출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탄성치는 2005년 2/4분기 0.5에서 2008년 3/분기 0.19로 급락
학력 인플레이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진학률이 1995년 51.4%에서 2008년 83.8%로 급상승 -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어 2008년 하반기에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체 부족 인원은 15.6만 명에 달함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기업 월평균 임금은 2007년 현재 2000년 대비 59.5% 증가, 반면 500명 이상 대기업은 74.2% 증가
고용 정보 시장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취업자 중 직업알선기관, 취업소개기관 등을 통한 경우 6.1%에 불과.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확대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경기 침체에 대비한 고용 유지 지원 강화 - 둘째, 기업 투자 증가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집중 육성을 통해 일자리의 질 제고 - 셋째, 교육시스템과 직업훈련시스템 및 기업의 연계를 지원·촉진시킬 제도 마련 - 넷째,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청년 자립 지원 정책으로 '참여·자립형 사회' 구축 - 다섯째, 고용 관련 조사 DB 구축 세분화 및 취업알선기관의 활용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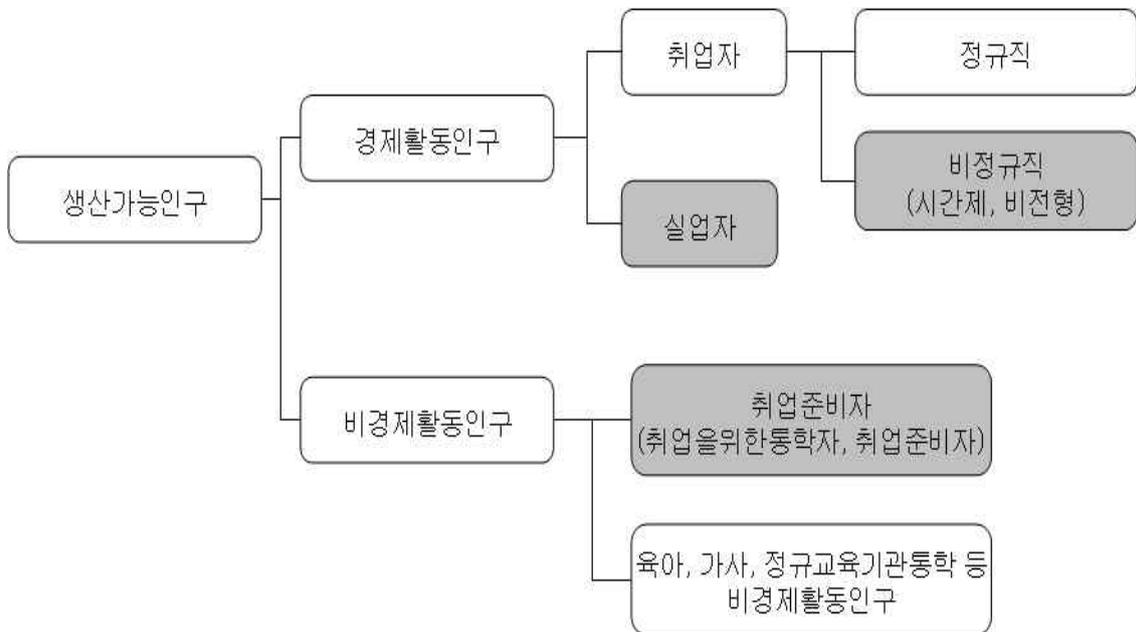
1. 프리터의 장년화 현상

○ (프리터의 정의) 프리터는 Free+Arbeiter의 합성어로 1987년 일본의 리크 루트사가 구인잡지에서 '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닌 '사회인 아르바이트¹⁾'를 지칭하면서 사용된 용어임

- 본 보고서의 프리터 개념

- 본 보고서에서는 프리터를, ①시간제·비전형²⁾ 근로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②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통학자, 취업준비자 ③실업자의 합으로 정의함
- 본 정의는 일본 내각부의 '국민생활백서(2003)'에서 발표한 프리터의 정의에 따른 것임. 이에 의하면, 프리터란 15-34세의 생산가능인구 중 ①파트 아르바이트, ②계약 및 파견사원, ③실업자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통계 체계에 맞추어 재정의한 것임

< 프리터 정의 >



주 : 부분이 프리터로 분류됨.

1) 사회인 아르바이트란 학교 교육을 마치거나 떠난 사람들인 사회인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를 의미.
2) 통계청 정의에 따르면, 비전형 근로자란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근로자를 일컬음.

○ (프리터 수 추이) 한국에서 프리터 수는 경기 부진 속 고용구조의 악화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프리터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프리터 비율이 상승하여 고용구조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전체 프리터 수는 2003년 8월 381만 명에서 2008년 8월 478만 명으로 97만명이 증가하여 2003년대비 25.5% 대폭 증가함.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프리터 비율이 10.2%에서 12.1%로 상승
- 한편, 전체 취업자 수는 2008년 8월 2,213만 명에서 2,362만 명으로 6.7% 상승.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2003년 59.2%에서 2008년 59.6%로 0.4%p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전체 프리터 비율은 10.2%에서 12.1%까지 상승
- 이는 생산가능인구 중 프리터 수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국내 프리터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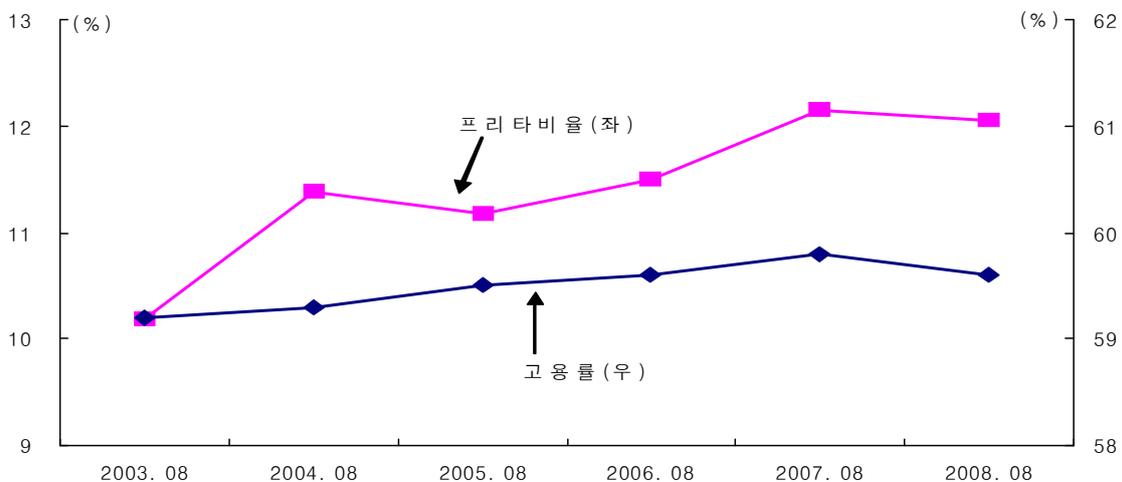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프리터수	3,809	4,300	4,295	4,463	4,769	4,780
(프리터 수 비율)	(10.2)	(11.4)	(11.2)	(11.5)	(12.2)	(12.1)

자료 : 통계청.

주 : 프리터 수비율=(프리터수)/(생산가능인구)로 정의됨.

< 고용률 및 프리터 비율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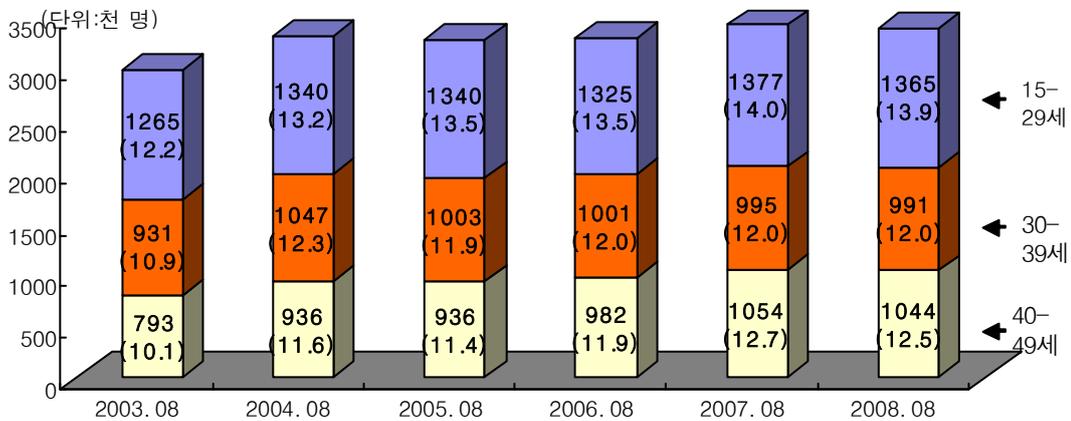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 프리터비율=(프리터수)/(생산가능인구)로 각각 정의됨.

○ (프리터의 장년화 추세) 정규직 취업의 곤란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부터 출발한 청년 프리터들이 30대 후반까지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장년층 프리터가 증가하고 있음

- 청장년층의 프리터 비율 증가 : 30~40 대의 장년층 프리터 비율도 증가
 - 30-39세 장년층의 프리터 비율은 2003년 10.9%에서 2008년 12.0%로 1.1%p 증가한데 반해, 동 기간 고용률은 71.7%에서 72%로 0.3%p 상승에 그침
 - 40-49세 장년층의 프리터 비율은 2003년 10.1%에서 2008년 12.5%로 2.4%p 증가한데 반해, 동 기간 고용률은 76.0%에서 78.2%로 2.2%p 상승

< 청장년층의 프리터 수 변화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 안의 숫자는 생산가능인구 중 차지하는 프리터 수의 비율을 의미.

- 연령대별 취업자수 대비 프리터 수 증가 : 전체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취업자 수 대비 프리터 수의 비율도 증가 추세
 - 전체 취업자 대비 프리터 비율은 2003년 17%에서 2008년 20%로 3%p 증가
 - 15-29세의 취업자 대비 프리터 수의 비율은 2003년 27%에서 2008년 33%로 6%p 상승하였으며 30-39세 장년층의 프리터 수는 전체 취업자수 대비 2003년 15%에서 2008년 17%로 2%p 상승

< 프리터 수와 취업자 수의 비율 추이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5-29세프리터수/15-29세취업자수(%)	27.4	29.9	30.4	31.2	32.7	33.4
30-39세프리터수/30-39세취업자수(%)	15.2	17.1	16.6	16.4	16.7	16.7
40-49세프리터수/40-49세취업자수(%)	13.2	15.2	14.9	15.4	16.4	16.0
전체프리터수/전체취업자수(%)	17.2	19.2	18.8	19.3	20.3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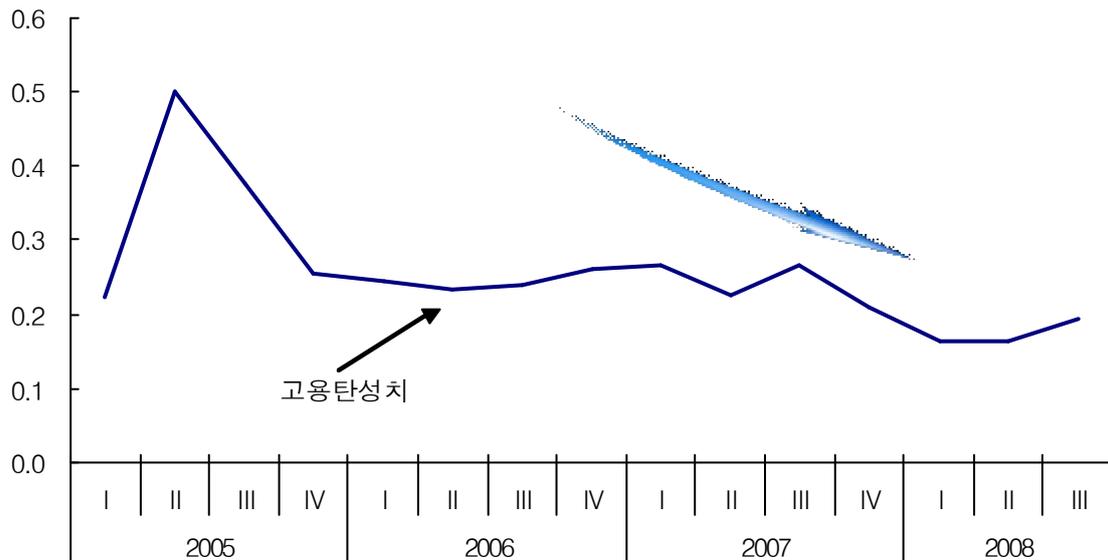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 프리터의 장년화 추세 배경

○ (고용 창출력 약화)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와 노동절약적 산업으로 이행에 따라 취업 기회가 감소하는 추세임

- 고용 창출력의 저하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면서 고용 창출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2005년 2/4분기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증가율의 비율인 고용탄성치는 0.50에서, 2008년 3/4분기 고용탄성치는 0.19로 하락함. 이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취업자증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한편, 한국은행의 '2006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에 따르면, GDP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전산업 고용계수는 2000년 7.0명에서 2005년 6.1명, 2006년 5.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규 취업자수 급감 : 극심한 내수 침체로 인해 신규 취업자 증가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4월 현재 -18.8만 명을 나타냄
 - 특히, 신규 취업자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2008년 12월 이후 2009년 4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고용탄성치 감소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중소기업청('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2008.6.11)의 고용탄성치 추정방법을 사용.

○ (학력 인플레이에 의한 일자리 불일치) 노동 공급측면에서 대부분의 신규 취업자가 대졸자 출신이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어 미스매치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

- 학력인플레이 현상의 심화 :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이 2008년에는 83.8%까지 상승하였고,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율도 72.9%에 달함
-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1980년, 1990년 각각 27.2%, 33.2%에 불과했으나, 1995년 51.4%로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였고 2000년, 2008년 각각 68.0%, 83.8%로 급격히 증가함
- 특히, 취업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율은 1990년 8.3%에서 2000년 42.0%로 증가하였고, 2008년 현재 72.9%에 달함

< 대학 진학률 추이 >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대학 진학률(%)	33.2	68.0	82.1	82.1	82.8	83.8
전문계 고교	8.3	42.0	67.6	68.6	71.5	72.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중소기업의 인력난 : 노동부의 인력수요동향조사에 따르면, 격심한 경기 침체에 빠진 2008년 상반기/하반기 중소기업의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소규모일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부족인원은 2008년 상반기 20.6만명에 이르고, 하반기에도 15.6만명에 이름
- 특히, 5인 이상 9인 이하의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2008년 상반기 6.2만명에 이르러 부족률이 4.3%에 달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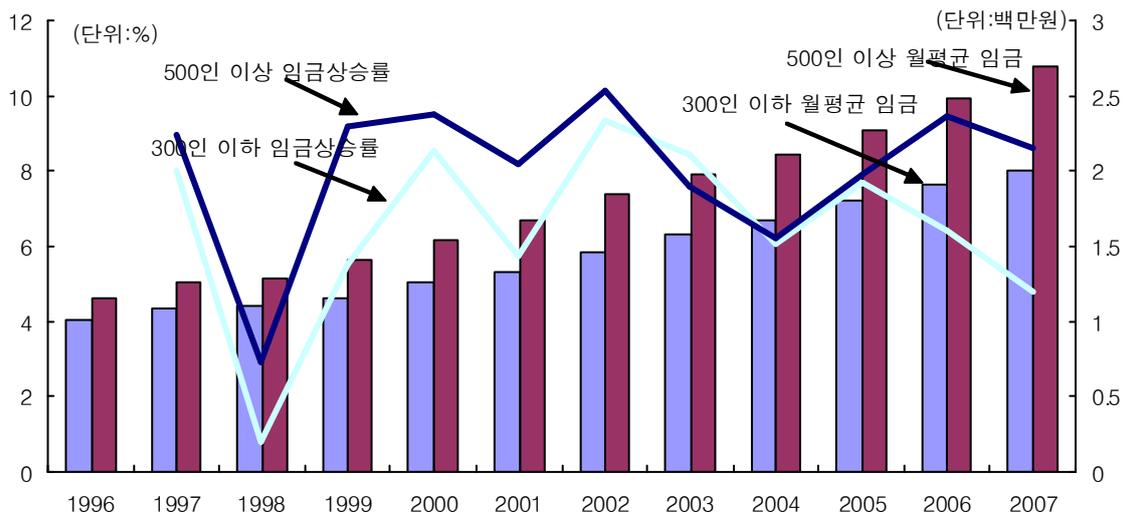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채용인원(명)	부족인원(명)	채용인원(명)	부족인원(명)
중소규모(300인미만)	430,196	205,659	284,971	156,112
1규모(5~9인)	101,324	62,017	57,945	48,768
2규모(10~29인)	138,771	68,657	88,999	49,301
3규모(30~99인)	111,555	46,645	83,722	37,748
4규모(100~299인)	78,546	28,340	54,305	37,748

자료 : 통계청.

○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심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일자리 불일치 현상이 심화시키고 있음

- 규모별 임금 격차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인당 평균 임금의 격차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커져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격화시킴
 - 1997-2007년 사이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8.1%인데 반해, 동 기간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6.5%에 불과함
 -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126만원에서 2007년 201만원으로 75만원 증가한 것에 비해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2000년 1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115만원 증가함

< 기업 규모별 임금 총액 및 상승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300인 이하 규모의 임금총액과 임금상승률은 각각 1규모(5-9인)에서 4규모(100-300인)까지의 각 규모별 가중 평균값임.

○ (고용 정보 시장의 인프라 부족) 노동 시장의 인프라 부족으로 공공, 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할이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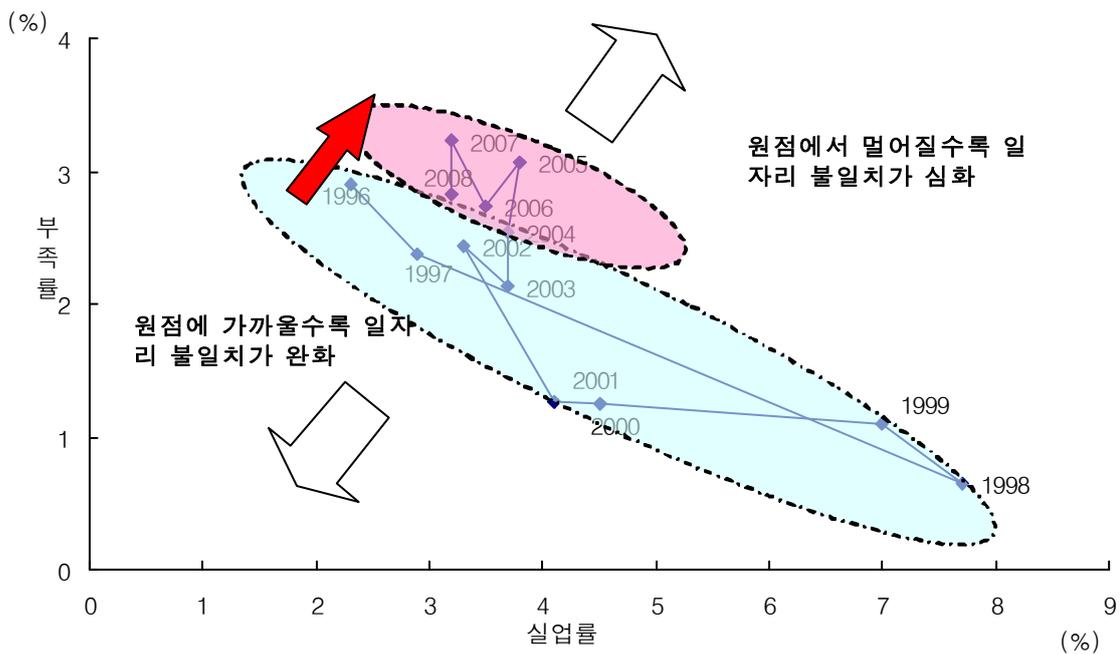
- 인프라의 부족 : 통계청의 2008년 5월의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중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내 취업소개기관 등을 통한 경우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 >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 본 일자리 불일치 현상 추이

○ (일자리 불일치 현상의 심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로 인해 인력수요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여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음

- 일자리 불일치에 따른 프리터의 증가 : 프리터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진입단계에서 학력간, 기업규모별 불일치에 따른 일자리 불일치 (job mismatch)에 따른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2004년 이후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³⁾이 이전보다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부족률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써 일자리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최근 베버리지 곡선 추이 >



자료 : 통계청, 노동부.

3) 베버리지 곡선은 인력수요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노동력과 일자리(job)간의 노동시장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것임. 예를 들어, 성장 산업에서는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사양 산업에서는 인력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자를 방출하지만 사양산업에서 방출된 인력과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출한 인력이 성장산업부문이 필요로 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력 부족률은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면, 베버리지 곡선은 우상방으로 이동함. 자세한 내용은 조영철, 최영섭(1999), 산업구조변화와 직업불일치, 경제학연구 제47집 제1호, 을 참조.

3. 대응 과제

○ (고용 유지 지원 지속)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확대와 연장, 대량 해고 사업주에 대한 지도를 통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실직자의 재취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전국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직업 상담·소개·훈련, 고용보험의 확충, 직업 훈련 등을 생활 보장이 필요
- 신규 채용자의 내정 취소 사업주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일자리 질의 제고) 기업 투자 증대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 집중 육성을 통해 전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함

-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청년층 또는 장년층의 프리터화를 방지해야 함

○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연계) 교육시스템과 직업훈련 시스템 및 기업의 연계를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이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로 프리터 후보군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일본 정부는 '청년 자립·도전전략회의'를 설치하고, NEET족이나 프리터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국의 교육과정평가원(QCA,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은 2004년 9월 학기부터 14세 이상인 중등학교 고학년생(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연계 교육'을 실시

-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 프리터 증가의 억제 및 감소를 위해서는 ‘참여·자립형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함
 - 가정 : 자녀의 프리터화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 및 가족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자녀의 독립심 배양이 중요함
 - 학교 :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조기 직업 체험 등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현실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체제 마련이 필요함
 - 지역 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하며,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고용 관련 DB 세분화)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연령·교육정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 시장의 특징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취업 희망자와 채용 희망 기관들에 대한 상세한 고용 관련 조사는 물론 이를 DB화하는 등 고용 관련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완·정부 및 관련 공공 고용 정보 제공 기관들에 대한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전문 취업알선기관 육성의 내실화가 필요함

정유훈 선임연구원 (3669-4014, youhu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신규 고용 감소세 지속

○ 4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하락하였으나 신규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신규 취업자 수 18.8만 명

- 4월 취업자 수는 2,352만 명으로 지난 3월 2,311만 명에 비해 41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실업률도 3월 4%에서 3.8%로 0.2%p 하락
- 단, 신규 취업자는 18.8만 명 감소하여 지난 2008년 12월부터 연속 5개월 감소세를 지속
 - 향후 경기 침체 지속으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고용 시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큼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경기	수요	경제성장률	2.2	5.5(1.1)	4.3(0.4)	3.1(0.2)	-3.4(-5.1)	-4.3(0.1)	-	-	-
		소비재판매	1.0	4.4	2.9	1.4	-4.2	-4.9	-6.1	-5.3	-
		설비투자지수	-3.2	-0.7	-0.5	5.3	-16.2	-23.0	-19.5	-23.7	-
		건설수주	-9.0	-3.7	-6.1	-22.7	-6.5	-16.5	-20.7	-14.7	-
	공급	수출	13.6	17.4	23.1	27.1	-9.9	-24.9	-18.3	-22.0	-19.0
		광공업생산	3.0	10.9	8.9	5.6	-11.3	-15.5	-10.0	-10.6	-
		취업자수 (만명)	2,358	2,305	2,387	2,373	2,367	2,290	2,274	2,311	2,352
		실업률	3.2	3.4	3.1	3.0	3.1	3.8	3.9	4.0	3.8
	수입	22.0	28.9	30.5	42.8	-9.0	-35.9	-30.9	-35.9	-35.6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64	-52	-1	-86	75	85.8	35.6	66.5	-	
	무역수지 (억\$)	-132	-66	-3	-79	15	35.3	29	42.9	60.2	
물가	생산자물가	8.4	5.1	9.0	11.3	8.0	4.2	4.4	3.5	1.5	
	소비자물가	4.6	3.8	4.8	5.1	4.5	3.9	4.1	3.9	-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단기 급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 시장 조정 국면

○ (해외 금융 시장) 뉴욕 증시 조정으로 미 달러화 약세

- **금리**: 美 연준위의 124.9억 달러 상당의 국채 매입과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해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미국채 10년물 : 3.29%→3.09%)
- **환율**: 엔화는 미국 주가 하락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물 증가로 미 달러화 대비 상당폭 강세를 나타냄. 유로화는 신용시장의 경색 완화로 리보(Libor) 금리가 대폭 하락하며 미 달러화 선호현상이 완화되면서 강보합세를 유지 (\$/€ : 1.3635→1.3640, ¥/\$: 98.47→95.80)

○ (국내 금융 시장)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와 환율의 조정 국면

- **주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주가 강세를 주도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전주말 대비 큰 폭 하락 (1,412.1→1,391.7)
- **금리**: 시장의 예상대로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美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국고채 3년 수익률 : 3.90%→3.79%)
- **환율**: 하이닉스 유상증자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입 가능성으로 하락하였으나, 외국인의 주식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1,247.02→1,257.0)

○ (전망) 금융 시장에서 투자자의 관망세로 조정국면이 이어질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4/4	1/4	2/4	3/4	4/4	1/4	5.8	5.15 ¹⁾
국내	거래소 주가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206.3	1,412.1	1,391.7
	국고채3년(%)	5.74	5.10	5.90	5.74	3.41	3.94	3.90	3.79
	원/달러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383.5	1,247.0	1,257.0
해외	DOW	13,265	12,263	11,350	10,850	8,776	7,608	8,574	8,331
	Nikkei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8,109	9,432	9,093
	미국채10년(%)	4.02	3.87	3.97	3.82	2.21	2.66	3.29	3.09
	일국채10년(%)	1.51	1.45	1.60	1.47	1.18	1.35	1.46	1.44
	달러/유로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3250	1.3635	1.3640
	엔/달러	111.65	99.70	106.22	106.11	90.64	98.96	98.47	95.80
	두바이(\$/배럴)	89.06	97.66	136.65	90.60	34.66	46.80	56.76	56.52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5.14)기준